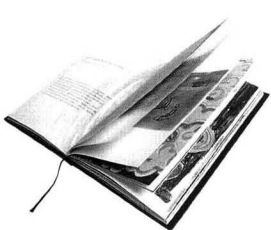




선에는 마음을, 여백에는 숨결을 담는다

한지에 채색을 입혀 정성스럽게 완성된 인물,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여백. 일러스트레이터 정경심(29) 씨의 작품에는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배치된다. 이 공간은 차분한 선과 포근한 번짐으로 텍스트와 그림 사이에 숨결을 불어넣는 그의 작업방식 때문에 가능하다. 전통의 향내도 거기서 비롯된다. 《엉뚱이 똥이》(우리교육)에 나오는 순박한 아이들의 표정도, 《Tales from the temples》(커뮤니케이션즈와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짱그린 듯한 표정의 벌거벗은 전등사 여인의 모습 등)도 모두 동양적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가부좌를 하고 참선을 하거나 한 시간 가량 요가를 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인데 그것도 체력소모가 크거든요. 감동을 주는 그림책 작업을 하자고 다짐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더 노력해야죠.”

만족하는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마음을 담은 그림’이라고 대답한다. 작업실 책상 앞에 있던 ‘신나게, 기쁘게 일하자’는 쪽지 역시 즐겁고 행복한 마음 그대로를 그림 속에 반영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한 지 3년째 되었어요. 절, 종교 관련 그림을 꽤 그렸는데 사실 불교와 별다른 인연은 없었거든요. 인연은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남편의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기에 그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현재는 독실한 신자처럼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에 관심도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소개되면서 외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Tales from the temples》과 최근 출간된 《주머니 속의 조약돌》(열림원) 등의 작업들을 그녀의 작품세계를 결정짓는 테마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는 여러 작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뿐 어디 한 곳에 자신의 그림정신을 가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스스로 주제를 만들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회화 작업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어느 정도 텍스트가 주어지지만 그 유타리 안에서 제 고민이 생기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죠.”

일러스트를 전공하지 않았기에 회화와 일러스트 사이의 개념 정립의 모호함을 느낀다는 그는 두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품 속에 자신만의 철학을 담으려 노력한다. 상업적인 그림도, 일반 회화작업도 작가의 치열한 고민에서부터 탄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촉망받는 신예작가로 불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 분야에 친분이 있는 선배는 많지 않다.

“윗 세대들의 공이 크다는 걸 항상 실감해요. 선배님들께 감사하죠.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저희들 작업 환경도 좋아졌는데 다 선배들 덕분이죠.”

그런 그가 내리사랑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라’는 것. 여기에는 시류나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세계를 구축하려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동양 고전을 주로 찾아 읽는데 우리 조상들이 먼저



해본 것, 먼저 본 것을 보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창의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비중도 크지만 이미지의 중요도도 그 못지않게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는 서양과 일본 그림책들을 보며 영감을 얻고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그런 그는 워트 넘치는 이야기만으로 짝 찬 그림책보다는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책을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작가로 장육진과 일본의 아카바 수에키치를 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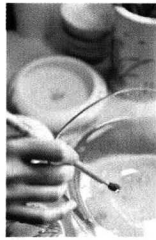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때라고 말한다. 회사에 소속된 상황이 아니기에 스스로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적지 않게 느낀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의외의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것도 그만의 매력인데 자칭 태권도 아줌마라고 할 만큼 태권도를 좋아하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했다는 남편(그의 남편은 강단에서 동양 미학을 가르치고 있다)에게 배운 다도승씨를 소꿉놀이하듯 보여주는 취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특정한 캐릭터와 테마에 애착을 갖기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그림을 그린다는 작가로 남고 싶죠.”

스스로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게으름을 피

울 처지는 아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 여러 곳에서 작품을 의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남편이 글을 쓰고 자신이 그림을 그려 완성할 예정이라는 비밀 작업, 미국 출판사와 진행중인 작업, 그 외의 몇몇 단행본 작품들이 그의 창작 열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전망대가 멀리 보이고,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모여 있는 곳, 파주 이주마을. 이 공간은 사유의 공간으로 그림 속 여백을 남겨두는 정경심 씨의 작



품 세계를 닮아 있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공간에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일러스트를 회화적으로 끌어내고, 책의 형식을 전시미술에 도입하는 것이다.

“제발 어른들도 아이들 그림책을 많이 보면 좋겠어요.”

《엉뚱이 똥이》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만큼 자신의 색깔을 찾게 해줘서 고마웠고, 《Tales from the temples》는 북페어 작품이라 애정이 깊다고 밝힌 그는 늘 ‘아직도 모자란다’고 자신을 낮추며 그림을 불러낸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